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 주 전역 적용	자카르타
문화·관광	3	‘일상의 축제화’로 지속가능한 예술도시로 승화	토론토
산업·경제	6	‘지속가능, 자급자족, 민주적 도시’ 기치 팝시티 주도	바르셀로나
	9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민간사업자 실증사업 지원	오사카
사회·복지	11	사회주거지 거주민이 쉽게 이사가게 ‘교환 플랫폼’ 설치	파리
	13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가정형 보호로 이전 지원 강화	빅토리아
	16	의무규정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장애인 조례’	도쿄
환경·안전	18	‘런던 녹지화’ 시민·지역커뮤니티에 나무 무료 제공	런던
도시교통	20	킥보드·스쿠터 등 전기동력 개인이동수단 자율 대여	보르도
정보·기타	23	수요자 기호에 따른 공공정보 제공으로 ‘열린 도시 1위’	에드먼턴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 주 전역 적용

시범도입 거쳐… 기초병원·고등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사회·복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기존 기초병원과 고등병원 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을 개발해 올 8월부터 북자카르타市에 시범도입함. 시범시행을 거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병원을 찾아주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최근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을 결정

－ 배경

- 현행 인도네시아 의료전달체계는 기초병원(FKTP)에서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고등병원(FKRTL)으로 진료위탁하는 방식
 - 고등병원은 진료과목, 규모, 전문성 등에 따라 A~D 유형으로 구분
 - A 유형은 광범위한 진료과목의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이고, D 유형은 일반의약품 처방과 치과 진료만 가능한 병원
- 고등병원으로 진료위탁이 필요한 환자가 자택에서 먼 곳에 있는 병원을 배정받거나 위탁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
 - 인근 기초병원에서 C 유형의 병원으로 진료위탁을 가려면, 먼저 D 유형의 병원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또한, B나 C 유형의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도 환자가 A 유형 병원으로의 진료위탁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때도 자주 있음
 - 고등병원으로 위탁 시 환자의 진료의뢰서 발급·제출이 필수지만, 환자가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를 분실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
-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을 개발해 올 8월부터 시범 도입

－ 주요 내용

-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은 의료전달체계를 디지털화해 국가의료보험카드(JKN-KIS) 소지 시민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

- 북자카르타시에서 올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시범시행
 - 북자카르타시 소재 기초병원 125개소와 고등병원 23개소가 참여
 - 2018년 10월 현재 시범시행 연장이 결정되어 계속 운영 중
 - 북자카르타시 내 국가의료보험카드 소지자 수는 2018년 10월 초 기준 약 143만 명이고, 시정부는 이를 연내에 200만 명까지 늘릴 계획
- 전문의 진료나 특수시설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온라인 진료위탁 의뢰시스템에서 적절한 유형의 고등병원을 찾아 곧바로 위탁
 - 진료위탁 시 환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음
 - 고등병원에서 재차 접수-진단-질병력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시범시행을 거치며 병원의 역량, 전문성, 시설, 환자 자택과 병원의 거리 등의 정보에 맞춘 진료 필수사항을 개발
 - 병원의 전문성, 환자의 과거 병원 이용기록,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위탁할 고등병원 검색 최적화 메커니즘 개발
 - 말기 신부전증, 혈우병, 유전성 빈혈, 한센병, 에이즈, 정신질환 등 특수질환은 모든 유형의 고등병원으로 곧바로 위탁 가능
- 특정 고등병원에 위탁되는 환자의 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환자들을 분배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스템 개선 과제

<https://bpjs-kesehatan.go.id/bpjs/dmdocuments/e7ac221a580330614e5e5547b6717378.pdf>

<http://bpjs-kesehatan.go.id/bpjs/dmdocuments/6493e59f93f32c16a51e9d51e3823487.pdf>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10/08/ujicoba-sistem-rujukan-online-bpjs-kesehatan-jakarta-utara-diperpanjang?page=1>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9/06/efektifkan-pelayanan-bpjs-kesehatan-jakarta-utara-ujicoba-rujukan-online>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8/14/bpjs-kesehatan-melakukan-uji-coba-sistem-rujukan-online-mulai-15-agustus-2018>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7/03/bpjs-kesehatan-jakarta-utara-targetkan-2-juta-peserta-tahun-2018>

<https://ekonomi.kompas.com/read/2018/10/02/132114326/bpjs-kesehatan-perpanjang-uji-coba-sistem-rujukan-online>

<https://ekonomi.kompas.com/read/2018/09/14/220800226/buat-sistem-rujukan-jkn-kis-online-bpjs-kesehatan-jamin-dua-hal-ini>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문화·관광

‘일상의 축제화’로 지속가능한 예술도시로 승화

캐나다 토론토市 / 문화·관광

- 캐나다 토론토市는 지역 음악 분야의 장·단기적 성장을 돕고자 2016년부터 토론토 음악 전략(Toronto Music Strategy)을 세우고, 시청·공원·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지역 음악인과 주민이 함께 음악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축제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게 하고, 음악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예술도시를 향해 나아감.
- 배경
 - 토론토는 문화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며, 음악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큼
 - 북미에서 4번째로 큰 문화도시이고, 시민의 71%가 정기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중의 참여도가 높음
 - 음악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은 런던, 뉴욕, 베를린과 견줄 수 있음
 - 음악을 바탕으로 한 도시 발전은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각종 음악 관련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의 의식을 고양하는 효과도 기대
 - 일상에서 경험하는 음악과 축제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적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음악 전략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음악 분야의 발전을 추구
 - 2013년 구성한 ‘토론토 음악산업 자문위원회’는 음악산업 쟁점에 관한 자문과 권고가 주요 기능이며, 관련 정책 연구·개발도 담당
 - 총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토론토 경제발전위원회장과 관광청 최고 경영자 등 음악산업에 관련된 넓은 스펙트럼의 인사를 포함
 - 2016년 ‘토론토 음악 전략’을 수립해 6개 영역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
 - 6개 영역은 음악가(Music Creator) 지원, 음악산업 활성화, 음악교육 확장, 지역·국제 홍보 강화, 다른 음악도시와 제휴, 전략 진행 상황 모니터링·평가 프로세스 구축

-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음악공연과 축제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음악인을 지원
 - ‘공원에서 예술·음악을’(Arts/Music in the Parks)
 - 토론토 음악 전략의 권고에 따라 시정부와 토론토 예술위원회, 토론토 공원이 협력해 시행
 - 지역 기반의 무료 음악공연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 ‘토론토 음악 등록’을 시작해 지역 내에 있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산업체, 서비스, 기관, 장소, 예술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작성
 - 토론토 피어슨 공항 음악공연 ‘YYZ Live’
 - 지역 음악인을 초대해 관광객과 주민을 상대로 연주 기회를 제공
 - 2017년부터 매년 75명의 예술가가 150번 이상 공연
 - 토론토 시청 앞 음악공연 ‘City Hall Live’
 - 지역 음악인이 여러 언어와 문화의 음악을 시민에게 제공
 - 6~8월 주중 점심시간에 열리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제



[그림 1]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서 연주 중인 지역 음악인

- 규제 완화와 법 개정
 - 음악 공연장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시내의 작은 공연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
 - 음악 공연장 인증제 도입, 세금감면 혜택 등 공연 공간 지원정책 시행
 - 새로운 소음 관련 조례를 개발·발의하고, 공연장 주변 불법 포스터 단속

- 다른 국제적 음악도시와 교류·협력
 - 지역 음악인의 세계 진출을 돕고 국제적 음악도시의 지위를 공고히 함
 - 시카고와 토론토가 함께 ‘Remix 프로젝트’를 추진해 콘서트를 기획·실행
 - 2016년 오스틴-토론토 음악 정상회담을 개최해 두 도시의 음악인이 함께 공연
- 시사점
 - 토론토시는 음악인을 경제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세계적 음악도시와 협력해 지역 음악인과 주민 모두가 음악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며, 음악을 바탕으로 도시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https://www.toronto.ca/business-economy/industry-sector-support/music>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8/ma/bgrd/backgroundfile-117426.pdf>

<https://musiccanada.com/news/toronto-music-advisory-council-highlights-key-milestones-at-last-meeting-of-the-term>

고한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산업·경제

‘지속가능, 자급자족, 민주적 도시’ 기치 팍시티 주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산업·경제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현대 도시에 맞는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실험적 제작공간인 팍랩(Fab Lab)에 일찍부터 주목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자급자족·민주적 도시라는 기치 아래 국제적 도시 운동인 팍시티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주도함. 올해 팍시티 서밋에서는 생태·포용·사람중심 등 10가지 원칙을 정하고 28개 참여도시와 함께 선언
- 배경
 - 일찍부터 팍랩 활성화에 노력해온 바르셀로나市
 - 소규모 실험적 제작공간인 팍랩은 그 규모나 산업 분야보다 누구나 쉽게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와의 강한 연계성이 특징
 - 바르셀로나는 2007년 유럽 최초로 ‘팍랩 바르셀로나’를 설립해 다양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팍랩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형 생산 모델을 만들어내는 팍시티 프로젝트를 주도
 -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유엔(UN)의 전망에 따라, 자원을 소비하는 도시에서 자급자족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민주적 도시로의 전환을 추구
 - 팍시티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 시정부, 카탈루냐 고등건축 연구소, MIT 원자 연구소와 협력해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한 국제적 도시 운동
 - 2054년까지 모든 참여 도시가 농업·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 최소 50%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목표
 - 매년 참여 도시 중 한 곳에서 팍시티 서밋을 개최해 팍시티 프로젝트의 목표 실현에 필요한 실질적 방법을 공유하고 지원
 - 현재 전 세계에서 28개 도시가 참여 중이며, 서울시도 2018년 파리 서밋을 계기로 참여
 - 올해 팍시티 서밋에서는 생태·포용·사람중심 등 10가지 원칙을 명시한 선언문을 채택

- 팍시티 프로젝트의 10가지 원칙

- 생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천연자원을 유지하며 쓰레기 배출 제로의 미래를 목표로 통합적 환경관리 방법을 실행
- 포용: 나이·성별·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정책 디자인을 촉진
- 글로벌리즘(Glocalism): 지역의 문화와 수요에 맞추어진 도구와 솔루션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와 지역 간의 글로벌 지식 공유를 권장
-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며 시민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경제성장과 고용: 사회적·환경적 외부 효과를 철저히 고려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인프라·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경제 성장을 지원
- 현지생산: 생산적이고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접근법에 따라 지역의 모든 가용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지원
- 사람중심: 기술보다는 사람과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탄력있는 도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도구·인공지능·로봇 등은 사람의 복지 and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선언
- 전체론적: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의존성 측면을 고려해 도시 문제를 다룰 것
- 오픈소스: 혁신 촉진과 도시와 지방이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형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을 견지
- 실험적: 팍시티 프로젝트의 이상을 구현하는 수단을 현재의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혁신 연구·실험의 수행과 그 결과물의 배포를 적극 지원

- 바르셀로나의 주요 팍시티 프로젝트 사례

- 제작자의 구역 포블레누(Poblenou Maker District)
 - 포블레누 지역의 대표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재산업화 운동
- 당신이 하는 일을 후원한다(Impulsmos lo que haces)
 - 사회적·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기술이나 디지털 제조의 촉진을 장려하는 지원금 제도

- 디지털 제조 워크숍(Los ateneos de Fabricación Digital)
 - 디지털 제조 워크숍을 도시 전역에 분산 구축하고 네트워크화해 시민의 디지털 제조 역량을 강화
- 메이커 페어 바르셀로나(Maker Faire Barcelona)
 - 팍시티 프로젝트의 이상 구현에 필요한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열리는 전세계 예술가·엔지니어·과학자 간 만남의 행사



[그림 1] 바르셀로나 디지털 제조 워크숍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nomiatreball/es/noticia/por-una-ciudad-mzas-sostenible-autosuficiente-democrzatica-e-inclusiva>

<https://fab.city/documents/Online-Manifesto.pdf>

<https://fab.city/#intro>

<https://fablabbcn.org/news/2018/07/27/manifestofcs.html>

https://fablabbcn.org/about_us.html

<https://ajuntament.barcelona.cat/digital/en/digital-innovation/make-in-bcn/maker-district>

https://www.barcelona.cat/es/conocebcn/pics/atractivos/el-ateneo-de-fabricacion-digital_99400322786.html

<https://ajuntament.barcelona.cat/digital/es/innovacion-digital/make-in-bcn/maker-faire-barcelona>

<http://barcelona.makerfaire.com>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민간사업자 실증사업 지원

일본 오사카市 / 산업·경제

- 일본 오사카市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 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실증사업 검토 팀’을 창설하고, 사물인터넷(IoT)·로봇 사업의 실증실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 배경
 - 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의 실현과 지역사회 보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실용화를 가속하는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오사카부(府),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 주요 내용: 실증사업 도시 오사카
 - 2017년 2월 오사카 상공회의소와 ‘실증사업 도시 오사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 제휴협정을 체결
 - 시가 관리하는 공공공간이나 시설 등에서 실증사업을 펼치기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하며, 상공회의소가 창구 역할을 담당
 - 2018년 5월에는 오사카부와 협력하여 ‘실증사업 검토 팀’을 신설
 - 실증사업 필드 개척이나 기업 수요 발굴, 국가 정책 동향변화에 따른 대응, 규제완화 요청 등 실증사업의 원활하고 활발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
 - 주요 지원대상 실증사업 분야
 - 선진적 마을 만들기, IoT, 로봇테크놀로지(RT), 자동운전, 드론, AI, 헬스케어, 오픈데이터, 빅데이터
 - 주요 지원내용은 필드 조정, 사업화 지원, 규제 완화
 - 필드 조정: 실증사업의 주요 필드로 시와 상공회의소가 체결한 협정에 기초한 시설, 시의 관련 시설, 오사카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등을 고려
 - 사업화 지원: 오사카부의 보조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실증사업 홍보 지원 등
 - 규제 완화: 국가전략특구를 이용한 규제 완화를 국가에 요청

- 사례: IoT·로봇 관련 비즈니스 창출 사업
 - IoT·로봇 분야의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계획 구상, 유효성 입증, 데이터 수집 등의 실증실험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
 - IoT·로봇 사업 창출 프로그램 ‘AIDOR Acceleration’과 관련 사업의 실증실험 지원 프로그램인 ‘AIDOR Experimentation’을 운영
 - ‘AIDOR Acceleration’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에게 IoT·로봇 분야의 사업화 노하우 등을 제공
 - 첨단기술 이해도가 중요한 해당 분야의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
 - ‘AIDOR Experimentation’ 프로그램은 실증실험계획 작성 지원이나 조정 등 실증실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아시아태평양 무역센터와 마이시마(舞洲) 스포츠 시설을 실증실험 필드로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설치해 전문가 조언이나 실증실험계획 작성 등 지원
- 그 밖의 대응
 - 시는 킨테츠그룹 홀딩스(株)와 (株)미쓰비시 종합 연구소가 추진하는 디지털 지역통화 ‘킨테츠 하루카스 코인’(近鉄ハルカスコイン)의 실용화에 협력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실증사업을 오사카 전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

<http://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46384.html#3>

https://www.osaka.cci.or.jp/innovation/social_demonstration/osaka.html

<https://www.kintetsu-g-hd.co.jp/common-hd/data/pdf/sai180907hd20180907140715362968405.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사회·복지

사회주거지 거주민이 쉽게 이사가게 ‘교환 플랫폼’ 설치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사회주거지(Logement Social) 거주민이 자녀의 출생이나 소득 변화 등 개인 사정의 변화에 맞춰 쉽게 주거지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주거지 임대인 간에 광범위한 협약을 맺어 임차인이 손쉽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
- 배경: 프랑스 사회주거지의 특성
 - 프랑스 사회주거지는 시장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는 주거지를 의미
 - 사회주거지의 임대인인 ‘사회임대인’(Bailleur Social)은 공공기관일 때도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일 수도 있음
 -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 복지정책으로, 파리시와 일-드-프랑스(우리나라의 경기도에 해당)의 많은 복지정책이 사회주거지와 연계 시행
 - 사회주거지 입주자격은 프랑스 국적의 파리시민이거나 정식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해진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주거지는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에 따라 A, B, C, D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소득기준은 동거인, 피부양자,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가 1년 전에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선정
 - 1인 가구 기준 사회주거지 유형별 소득 상한선은 A 유형이 12,848유로(1,670만 원), B 유형은 23,354유로(3,030만 원), C 유형이 30,360유로(4,000만 원), D 유형은 42,037유로(5,460만 원)
 - 소득기준 비교 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고 월세도 평균 2배 이상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D 유형의 소득 상한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거지는 중류층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거복지정책
 - 실제로 파리시민 중 70%가 사회주거지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기준을 충족한 모든 시민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민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수제를 도입
 - 25가지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우선권을 주고, 노숙자, 가정폭력 피해자, 철거민 등에는 가점 부여
- 소득이나 가족 구성의 변화 등 거주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집으로 옮기기 쉽도록 ‘사회주거지 교환 플랫폼’(Échanger Habiter)을 구축
 - 비시장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주거지는 지금까지 거주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 이동이 쉽지 않았음
- 여러 사회임대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임대인 간에 임차인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같은 사회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사회거주지로의 이동도 포함
 - 대부분의 사회임대인이 협정을 체결해,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중의 부동산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주거지를 웹상에 소개하는 ‘룩아농스’(LOC’annonce) 사이트를 개발해 사회주거지 교환 플랫폼을 실현
 - 시민이 해당 사이트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상담원과 약속을 정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절차를 5단계로 최대한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도모
 - 사회주거지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방법은 1) 자신의 정보를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 2) 원하는 집을 검색, 3) 원하는 집을 방문해 확인, 4) 서류준비와 제출, 5) 이사의 5단계로 구성
 - 2018년에는 이 플랫폼이 파리에만 적용되지만 2019년부터는 일-드-프랑스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https://www.paris.fr/actualites/echanger-habiter-lancement-de-la-premiere-plateforme-pour-echanger-son-logement-social-a-paris-6134>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logement/logement-social/demander-un-logement-social-37>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가정형 보호로 이전 지원 강화

호주 빅토리아주 / 사회·복지

-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대나 방치 등의 이유로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중 시설보호 대상자들이 가정형 보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함. 표적보호 프로그램(Targeted Care Packages)을 도입해 대상 아동·청소년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는 돌보미에게도 개별화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유연한 정책을 설계
- 배경과 목적
 - 호주에서 학대와 방치 등의 이유로 가정외 보호를 받는 0~18세 아동·청소년은 3만 5천 명 수준(2014년 기준)
 - 빅토리아주의 가정외 보호 대상은 7,710명이고, 아동 1,000명당 6.1명(호주 평균 8.1명)으로 호주에서 가장 낮은 가정외 보호율을 기록
 - 호주의 가정외 보호는 크게 시설보호, 가정형 보호, 세입자 보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시설보호는 복합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가정외 보호 대상자의 6.7%가 이용
 - 가정형 보호는 주체에 따라 친족 보호, 위탁 보호, 영구 보호로 구분
 - 세입자 보호는 16~18세의 상대적 고연령층 대상에게 준 독립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소수만 이용
 - 가정외 보호는 일반적으로 교육·건강·사회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 가정외 보호 대상자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 교육 참여율이 낮으며,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행위적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
 - 또한, 학대 혹은 방치 경험으로 교우관계나 성인과의 관계 형성 등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겪는 때가 많음
 - 시설보호는 가정형 보호에 견줘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편
 - 보호 대상자도 가정형 보호 대상자보다 복합적 욕구를 지님
 - 주정부는 시설보호보다 가정형 보호를 정책적으로 선호
 - 하지만, 가정형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보호 제공 기능이 낮음

- 이에 따라, 주정부는 표적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설보호를 점진적으로 가정형 보호로 대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표적보호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표적보호 대상은 가정외 보호 대상자 중 추가 보호지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서 시설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들
 - 크게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이와 시설입소 위험이 있는 이의 두 집단이 대상이지만, 표적보호는 시설보호를 예방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가정형 보호를 받는 이들 가운데 복합적인 욕구가 발달하거나 기존에 시설보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요 정책 대상
 - 원주민 아동·청소년, 12세 이상 아동, 장애 아동·청소년 등도 주요 대상
 -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신청과 주정부 담당자의 승인으로 대상자를 결정
- 표적보호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원칙적으로 시설입소를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종류와 금액이 결정
 - 가령, 재정적 여건으로 가정에 돌아가기 어려운 삼남매가 있다면 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에서 더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세를 지원
 - 또한, 부모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족치료나 상담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 교재 구입, 교통비, 치료·상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표적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돌보미 지원에도 투자
 - 가정 내에서 돌보미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어려운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일대일 현장 훈련, 교육지원, 콘퍼런스 참가비 지원 등이 포함
 - 돌보미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사업주에게 그를 대체할 인력의 고용·훈련 비용도 지원
 - 표적보호 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 지난 2015년 표적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총 640개 사례에 혜택을 제공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162개 사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 이 추가 지원에 주정부는 4,930만 호주달러(397억 원)의 예산을 배정

<https://www.premier.vic.gov.au/prioritising-home-based-care-for-vulnerable-children>

<https://providers.dhhs.vic.gov.au/targeted-care-packages-guidelines-january-2018-word>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의무규정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장애인 조례’

일본 도쿄도 / 사회·복지

- 일본 도쿄도는 ‘장애인차별 해소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의 의무 적용대상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민간사업자까지로 확대하는 조례를 올 10월 1일 제정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분쟁 해결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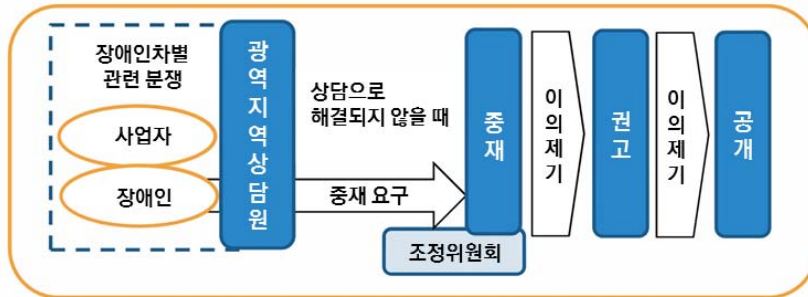
- 개요

- 도쿄도는 올 10월 1일 ‘도쿄도 장애인의 이해촉진 및 차별해소 추진에 관한 조례’(東京都障害者への理解促進及び差別解消の推進に関する条例)를 제정·시행
 -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2017년 3월부터 조례제정을 검토
 - 장애인과 관련 사업자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추진
 -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
- 일본은 이미 장애인차별 해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만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
 - 민간사업자에는 ‘노력 의무’만 부여했지만, 도쿄도의 조례는 민간사업자도 의무적으로 규정을 지키도록 함

- 주요 내용

- 합리적 배려의 제공
 -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사업자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화나 필담·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도쿄도는 해당 사업자를 공개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개정책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 사업자가 조례의 내용을 잘 따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
 -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장애인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선발해 ‘광역지원상담원’ 제도를 운영

- 분쟁 발생 시 해결체계도 설계
 - 광역지원상담원의 상담으로도 분쟁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중재-권고-공표로 이어지는 분쟁 해결체계를 설계
 -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도쿄도 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결을 도모



[그림 1] 도쿄도 장애인차별 관련 분쟁 해결체계

- 장애인을 포함한 공생사회의 실현을 돕는 기초적 정책도 시행
 - 장애인 정보보장 정책 추진, 언어로서의 수화 보급, 인식개선 교육 추진, 사업자의 장애인차별 방지 노력 지원(관련 사례집 제작, 연수 제공 등)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abetsukaisho_yougo/sabekaikeihatsu.html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tokyoheart/index.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환경·안전

‘런던 녹지화’ 시민·지역커뮤니티에 나무 무료 제공

영국 런던市 / 환경·안전

-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올해 초 성명에서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덮겠다는 선언을 함. 이에 따라 런던시는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와 전기차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런던시민과 지역 커뮤니티에 무상으로 나무를 나누어주는 정책을 실행
- 개요
 - 런던은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를 녹지로 조성해 세계최초의 국립공원 도시를 만들 계획(※ 415호 참조)
 - 나무 무상 배포는 이와 관련된 런던 녹지화(Greener London) 계획의 하나
 - Woodland Trust, The Queen’s Commonwealth Canopy 등의 환경단체와 협력해 런던시민과 지역 커뮤니티에 무상으로 나무를 제공
- 주요 내용
 - 신청자 중 12,000명의 시민을 추천해 개인 주택의 정원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2그루씩, 총 24,000그루를 무상으로 배포
 - 수종은 단풍나무(maple)와 자작나무(birch)이며, 높이 20~40cm의 어린 나무로 제공
 - 런던 내 대부분 주택이 앞뒤로 정원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원 가꾸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그루의 나무 중 한그루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줄 것을 권고
 - 11월 5일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천으로 12,000명의 시민을 선정
 - 지역 커뮤니티에 나무 50그루씩을 배포
 - 개인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도 50그루씩 총 25,000그루의 나무를 무상으로 배포

- 자원봉사 단체 ‘The Conservation Volunteers’와 협력해 진행
- 지역 커뮤니티에는 자원봉사 단체가 선택한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자라는 튼튼한 나무를 제공하며, 나무 높이는 20~60cm
- 11월 22일까지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개인 신청과는 달리 준비한 25,000그루의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배포
- 개인 정원이 없는 시민을 위한 나무 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 개인 정원이 없지만, 런던을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길 원하는 시민을 위해 나무 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
 - 시정부는 올 12월 1~2일에 걸쳐 대규모 나무심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을 모집 중
 - 환경단체 ‘Trees for Cities’와 협력하여 런던 내 4개 지역서 대규모 나무심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

<https://www.london.gov.uk/community-trees>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green-spaces-and-biodiversity/plant-tree/>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green-spaces-and-biodiversity/tree-planting/volunteer>

<http://newlondonarchitecture.org/whats-on/events/2018/february-2018/london-2050-how-to-achieve-carbon-neutrality>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도시교통

킥보드·스쿠터 등 전기동력 개인이동수단 자율 대여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교통

- 프랑스 보르도市는 자동차 줄이기 정책의 한 가닥으로 저속이동수단 권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유행하는 각종 전기동력 개인 생활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자율 대여사업을 시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 중
- 배경
 - 보르도市는 다년간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공자전거 서비스 홍보와 권장 정책을 펼침
 - 전 세계 도시의 자전거 친화정도를 나타내는 덴마크 ‘코펜하겐 지수’(Copenhagenize Index)에서 2013년 4위에 선정
 -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가을부터 전기자전거 자율 대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음
 - 민간차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의 대여 사업이 허가되어 대학생과 직장인이 통학·출퇴근에 유용하게 사용 중이며, 사용자도 증가 추세
- 주요 사례
 - 보르도市의 자율 대여 자전거 ‘Vcub’에 전기자전거 도입
 - Vcub은 2010년 첫선을 보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버스와 트램에 이어 보르도市 제3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그림 1] 보르도市가 새로 선보인 전기자전거(좌)와 기존의 Vcub 자전거(우)

- 최근 유행 중인 전기자전거를 기존 서비스에 접목 시도
 - 대여소당 한두 대 정도만 시험 배치하여 호응도를 조사한 뒤, 올 가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
-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총 1,000대의 전기자전거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운행 자전거의 50%를 전기자전거로 대체할 계획
 - 동시에 기존 자전거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반 자전거에도 경량화 등 디자인 변화를 줄 예정
- 스타트업이 선보인 자율 대여 전동킥보드 ‘Lime’
 -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무공해 이동수단의 권장 정책에 힘입어 올해 파리에 이어 보르도에 새로 선보인 스타트업 업체의 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지도상에 표시
 - 한번에 50km까지 충전 없이 주행할 수 있어 시내 이동수단으로 적합
 - 최고 속도 시속 24km로 주행
 - 사용요금은 첫 잠금해제 시 1유로(1,300원)이고, 주행시작 이후 분당 0.15유로(190원)
- 또 하나의 스타트업 전동스쿠터 ‘Yugo’
 -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프랑스 보르도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시내에 약 50대의 스쿠터로 서비스 중
 - 사용요금은 분당 0.22유로(290원)



[그림 2]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전동킥보드 Lime, Vcub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Yugo

– 시사점

- 미세먼지 줄이기, 보행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권장, 도심 차량 줄이기는 모두 따로 생각할 수 없이 서로 맞물린 문제들임
- 요즘 유행 중인 전동 개인 생활 이동수단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신설에 견주면 상당히 적은 비용부담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https://www.bordeauxtendances.fr/bientot-vcub-electriques-bordeaux>

<https://www.sudouest.fr/2018/09/19/bordeaux-metropole-les-vcub-electriques-arriveront-debut-2019-5404988-2780.php>

<https://www.sudouest.fr/2018/09/26/bordeaux-des-trottinettes-electriques-en-libre-service-debarquent-5425321-2780.php>

<https://www.bordeauxtendances.fr/scooters-ecolos-en-libre-service-a-bordeaux-bienvenue-a-yugo>

<https://objectifaquitaine.latribune.fr/business/2018-01-16/les-scooters-electriques-en-libre-service-de-yugo-arrivent-a-bordeaux-764887.html>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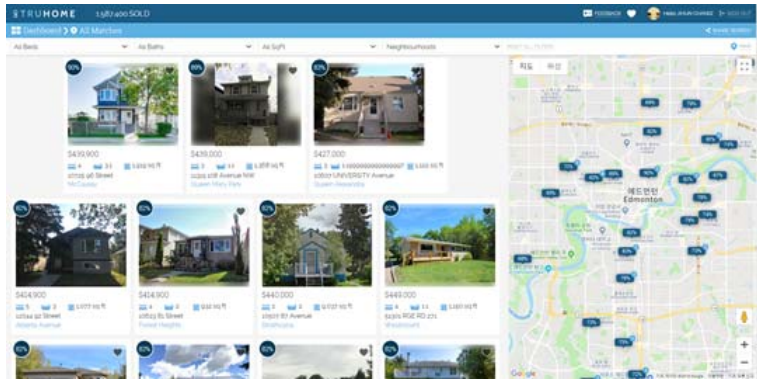
정보·기타

수요자 기호에 따른 공공정보 제공으로 ‘열린 도시 1위’

캐나다 에드먼턴市 / 정보·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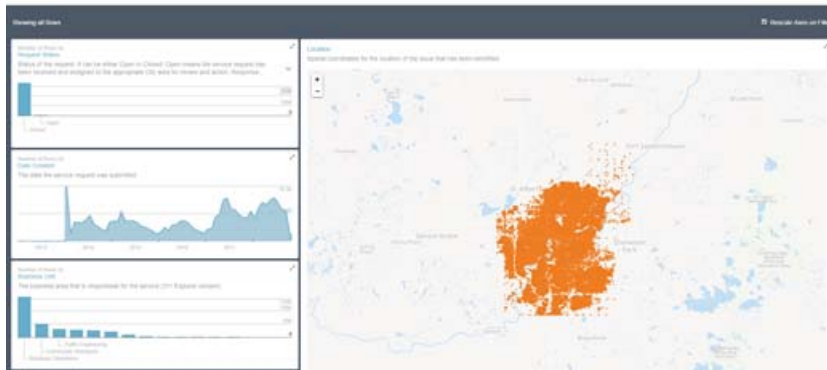
- 국가별 오픈데이터 순위 2위의 캐나다 내에서도 선두를 자랑하는 에드먼턴市는 시가 확보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공개해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부동산 선택 도구, 교통 정보, 도서관 도서 정보, 친환경 건물 지도, 민원해결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 개요
 - 캐나다는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공개한 2017년 국가별 오픈데이터 바로미터 4차 보고서에서 90점을 기록해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81점으로 5위를 기록
 - 에드먼턴시는 2010년부터 시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공개 5년만인 2015년 캐나다 평가대상 34개 도시 중 열린도시 지수 1위를 기록
 - 현재까지 선두를 유지 중(2017년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
 - 에드먼턴시 오픈데이터 운영의 주요 특징
 - 캐나다 연방정부의 열린정보 현장을 가장 먼저 수용한 첫 번째 도시
 - 정부 지출 데이터에서 GIS까지 광범위한 최신 데이터 세트를 무료로 제공
 - 매달 오픈데이터 위원회를 개최해 전략적 오픈데이터 계획과 활동이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
 - 2017년 6월 현재 시정부 직원 4,235명이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54,171개의 데이터 세트와 시각화 자료를 활용 중
- 주요 사례
 - 잠재적 주택 수요자에게 주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트루홈(TruHome) 서비스
 - 오픈데이터 플랫폼에서 시의 기반시설 정보와 시세 정보를 수집하여 잠재적인 수요자에게 최적의 입지 정보를 제공
 - 대화형 플랫폼이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정해 순위별로 게시

- 수요자의 재정상태, 직장위치, 안전요구사항 등의 기본 질문과 이상적인 집의 위치·가격·형태 등의 추가 질문을 바탕으로 선정
- o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위치를 정할 때 필요한 인구통계와 성향·계층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제공



[그림 1] 트루홈 서비스의 대화형 플랫폼으로 산출한 주택 결과

- 교통 정보 카메라 위치와 교통 소통 정보
 - o 지역별·속도별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정보, 교통상황 CCTV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패턴 연구에 이바지
 - o 교통사고, 공사현황,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정보도 인터랙티브 맵을 활용해 제공
- 에드먼턴 공립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 o 에드먼턴 공립 도서관은 각 지역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데이터를 매주 제공
 - o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가 많은 지역도서관에 어학 관련 서적 공급을 늘리는 등 도서관 실정에 맞춰 도서의 이동을 제어
 - o 시정부와 협력하여 국제 오픈데이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수집과 선별, 시각화 등의 워크숍을 개최
- 민원 해결 지도
 - o 최근 311건의 민원 접수 사항과 위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맵
 - o 도로 침수, 잡초 제거, 제설 요청, 불법주차 신고 등 광범위한 민원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
 - o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불만 사항에 지역구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그림 2] 에드먼턴시 민원 해결 지도

- 기타
 - 면허 건수를 바탕으로 작성한 반려 동물 분포 지도, 자전거 주차시설 위치 지도, 침수 범람 지역 이력 지도 등
 - 제설작업 현황 앱, 식용 과실수 검색 앱,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한 주택 순위 앱 등

<https://data.edmonton.ca/>

<http://www.yourtruhome.com>

<https://data.edmonton.ca/Indicators/311-Explorer/h6er-8rw7>

<https://globalnews.ca/news/3649702/weird-and-wonderful-ways-open-data-is-unearthing-edmonton-information>

<https://globalnews.ca/news/2456703/edmontons-open-data-initiatives-rank-1-among-34-canadian-cities>

<https://codx.ca/2017-open-cities-index/>

<https://publicsectordigest.com/open-cities-index-results-2017>

http://webfoundation.org/docs/2018/09/WF_ODB_Report_English_Screen_AW4.pdf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